

# 세계의 시멘트産業 現住所

~CEMBUREAU 資料를 中心으로~

## 81년은 保合勢...生産

産業社會의 發展은 시멘트로부터 始作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現代生活에 있어 시멘트의 用途와 比重은 가히 絶對的이다.

따라서 시멘트産業의 浮沈은 産業社會의 成長 또는 沈滯와 거의 比例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巨視的으로 따져 社會의 直·間接資本 형성이 一定수준까지 도달되면 시멘트의 需要幅도 큰 起伏없이 一定線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시멘트需要에 對한 一般的인 見解이기도 하다.

世界各國의 시멘트需給추세도 이와 같은 論理의 範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멘트의 生産規模나 消費추세가 富의 尺度 내지 先進化의 基準으로 評價될 수는 없으나 다만 開途國의 경우 先進을 向한 期待需要가 클 수밖에 없어 生産 및 消費수준의 伸長率이 社會의 成長욕구와 國力을 어느 정도 反映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세계 唯一의 시멘트統計機關인 CEM-BUREAU (유럽시멘트協會)가 발표한 調査자료를 통해 世界의 시멘트産業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1981년 기준 共産圈을 포함한 조사대상 1백 58個國의 시멘트總生産量은 8억 8천 2백 90 만톤, 總消費量은 8억 7천 8백 만톤으로 前年에 비해 生産은 1백 80 만톤, 消費는 1백 10 만톤 增加에 그쳐 伸長率(0.2~0.1%)面에선 無視해도 觀

찰을 정도의 保合勢를 보였으며 1人當 消費量은 1백 90 kg 으로 前年の 2백 3kg 보다 오히려 6.4% 줄었다.

이를 다시 7개 圈域別로 나누어 10년 前인 1972년 實績에 對比해 보면 ▲아시아가 2억 8천 4백 90 만톤으로 68.9% ▲아프리카가 3천 4백 10 만톤으로 63.2% ▲東유럽이 7천 2백 85 만톤으로 37.1% ▲아메리카가 1억 5천 1백 20 만톤으로 23.3% ▲소련이 1억 2천 7백 만톤으로 21.8% ▲호주가 7백 만톤으로 18.6% ▲西유럽이 2억 1천 30 만톤으로 4.7%가 각각 늘어 비교적 新規開發 여지가 많고 개발의욕이 강한 아시아지역의 시멘트需要가 가장 활발한 반면 시멘트産業의 發祥地로서 일찌기 先進수준에 도달한 西유럽지역의 需要는 一定線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시멘트生産實績은 10년 前에 비해 30.5% 增加되었다.

## 開途國 成長勢유지

國別 시멘트生産順位 20位 이내의 국가중 日本·美國·西獨·프랑스·브라질·루마니아·폴란드·英國·東獨 등 9個國의 81년도 시멘트 生産實績은 前年에 비해 감소했으며 이밖의 나라들도 그 增加幅이 아주 작아 거의 保合상태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천 5백 60 만톤 (80년 1천 5백 57 만 3천톤)을 生産, 역시 保合되었

1981년 세계 시멘트생산국 현황

(單位: 천톤)

順位	國 別	生 産	消 費	1人當消費 (kg)	輸 出	順位	72年 生産量
1	소 련	127,000	124,600	465	3,000	6	104,300
2	일 본	84,406	77,870	659	9,731	2	65,902
3	중 공	82,000	81,100	80	1,000		38,000
4	미 국	65,055	66,517	289	272		76,709
5	이 태 리	43,072	42,657	746	623		33,868
6	스 페 인	30,493	18,509	491	12,026	1	19,949
7	서 독	30,208	29,300	475	2,110		42,571
8	프 랑 스	29,807	27,017	501	2,822	7	31,230
9	브 라 질	26,051	25,958	204	164		11,381
10	인 도	20,120	22,260	33	60		15,747
11	멕 시 코	17,978	18,125	255	76		8,602
12	한 국	15,600	12,439	321	5,757	4	6,486
13	터 키	15,149	11,772	259	3,389	5	8,728
14	루 마 니 아	14,750	11,950	532	2,800	8	9,212
15	대 만	14,359	12,458	686	1,691		5,869
16	폴 랜 드	14,232	13,930	388	400		13,984
17	그 리 스	13,117	6,515	670	6,663	3	6,342
18	영 국	12,788	12,402	221	527		18,664
19	동 독	12,204	10,919	652	1,300		8,857
20	체 코	10,646	10,740	702	429		8,046

資料: CEMBUREAU

으나 우리보다 上位에 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實績이 急減돼 80년 14位에서 12位로 밀려 올라갔으며 消費實績은 1천 2백 43만 9천톤으로 14位에 랭크되었다.

이와 같은 시멘트需給規模의 保合 내지 萎縮은 제 2차 오일쇼크와 함께 세계를 휩쓴 不景氣 탓으로 說明될 수 있다.

한편 20位圈내 국가들의 지난 10년간 시멘트生産 增·減추세는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起伏이 엄청나다.

우선 美國·西獨·프랑스·英國 등 西歐先進國들의 생산규모가 최저 4.6%에서 최고 31.5%까지 激減된 반면 우리나라(純增 140.5%)를 비롯 中共(115.8%)·브라질(128.9%)·멕시코(109%)·대만(144.6%)·그리스(106.8%) 등은 倍增의 伸長勢를 보여주고 있다.

이보다 앞서 1961~1971년간에는 우리나라가 13배나 暴增한 것을 위시하여 시이론·잠비아·터키·태국·버마·대만·말레이시아·필리핀·우간다·그리스 등이 모두 3~4배의 生産增大를 시현했는데 當時 이들 국가의 생산규모는 71년 기준 20만 2천~7백 66만톤(韓國 6백 87만 2천톤)으로 比較基準值 자체가 낮아 큰 意味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1972~1981년간의 各國別 起伏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社會資本 형성이 안정권에 든 先進國들의 경우 退潮를 보이고 있는 반면 開途國들이 현저한 成長勢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中東 주변국 急伸長... 輸出

1981년도에 1백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輸出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5백 75만 7천톤을 기록, 前年에 이어 계속 4위를 마크하고 있다.

輸出上位圈에 있는 국가들을 順位別로 보면 ①스페인 ②日本 ③그리스 ④韓國 ⑤터키 ⑥소련 ⑦프랑스 ⑧루마니아順인데 1972년 對比 輸出伸長率면에선 ①스페인(877.7%) ②그리스(728.7%) ③日本(612.9%) ④韓國(387.1%) ⑤루마니아(158.3%) ⑥터키(134.4%) ⑦中共(66.7%) ⑧대만(49.9%) ⑨프랑스(49.2%) 順이며 쿠웨이트의 경우는 1만 2천톤에서 1백 55만톤으로 경중 뛰어 1백 29배의 경이적 기록을 세우기는 했으나 거의 제로상태에서 시작된 실적이기 때문에 正常의 우선순위로 꼽기는 어렵다.

한편 1981년기준 各國別 생산실적에 대한 輸出比重은 ▲그리스 50.79% ▲스페인 39.4% ▲韓國 36.9% ▲터키 22.37% ▲日本 11.5% ▲프랑스 9.46% ▲소련 2.36% 등인데 그리스와 스페인은 地理的 狀況을 심분 이용, 시멘트를 對中東 輸出産業化한 까닭으로 輸出規模와 伸長率, 輸出比重 등이 모두 높아졌다.

### 主市場은 中東 ... 輸入

1981년 기준 1백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輸入한 국가數도 輸出의 경우와 같은 16개국.

順位別로는 1천 2백 50만톤을 輸入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 이라크·나이지리아·미국·이집트·홍콩·쿠웨이트·네델란드·印度·아랍토후

세계시멘트 輸出·入國 現況

수 출 (單位: 千噸)

順位	國 別	1972	1981	增減率 (%)
1	스 페 인	1,230	12,026	877.7
2	일 본	1,365	9,731	612.9
3	그 리 스	804	6,663	728.7
4	한 국	1,182	5,757	387.1
5	터 키	1,446	3,389	134.4
6	소 련	2,100	3,000	42.9
7	프 랑 스	1,891	2,822	49.2
8	루 마 니 아	1,084	2,800	158.3
9	카 나 다	1,978	2,465	24.6
10	서 독	1,441	2,110	46.4
11	벨 지 움	1,586	1,938	22.2
12	대 만	1,128	1,691	49.9
13	쿠 웨 이 트	12	1,550	-
14	북 한	500	1,500	200
15	동 독	500	1,300	160
16	중 공	600	1,000	66.7

수 입 (單位: 千噸)

順位	國 別	1972	1981	增減率 (%)
1	사우디아라비아	299	12,500	4,080.6
2	이 략	62	6,000	9,577.4
3	나 이 지 리 아	701	5,000	613.3
4	미 국	4,401	3,595	▲ 18.3
5	이 집 트	2	3,500	-
6	홍 콩	1,156	3,397	193.9
7	쿠 웨 이 트	716	3,200	346.9
8	네 델 란 드	2,328	2,964	27.3
9	인 도	1	2,200	-
10	아랍토후국	280	2,000	614.3
11	싱 가 폴	1,030	1,930	87.4
12	서 독	1,225	1,770	44.5
13	리 비 아	1,354	1,300	▲ 4.0
14	시 리 아	347	1,200	245.8
15	베네수엘라	-	1,163	-
16	알 제 리 아	785	1,000	27.4

資料: CEMBUREAU

註: 1981년 실적기준 순위별

국·싱가폴 등으로 16개 主輸入國 중 中東을 중심으로 한 回教圈 국가가 절반이나 돼 역시 中東지역이 시멘트의 主市場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中東지역 국가들은 오일머니에 편승한 開發붐으로 시멘트의 輸入需要가 폭발적으로 늘어 72년對比 10년 동안 이집트가 2천톤에서 3백 50만톤으로 1천 7백 50배, 이라크가 6만 2천톤에서 6백만톤으로 97배·사우디아라비아가 29만 9천톤에서 1천 2백 50만톤으로 42배가 擴大됐으며 이밖에 아랍토후국이 7.2배·나이지리아가 6.2배·쿠웨이트가 4.5배·시리아가 3.5배의 輸入增加幅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注目할 것은 홍콩(3백 39만 7천톤)·印度(2백 20만톤)·싱가폴(1백 93만톤) 등 東南亞지역 국가들의 輸入需要도 괄목할 만큼 늘고 있어 東南亞가 새로운 시멘트市場으로 접차 浮上하고 있다는 點인데 홍콩과 싱가포르의 輸入實績에는 自由貿易地帶의 利點을 살려 輸入量 중 일부를 인근국가에 再輸出하는 3角貿易需要도 포함돼 있다.

또한 美國·印度·西獨·쿠웨이트 등은 일면 小量이나마 시멘트를 輸出하면서 1백 77만~3백 59만 5천톤씩을 輸入했는데 이는 시멘트의 商品的 特性上 輸送費부담이 큰데 따라 遠距離 수요를 인접국에 의존하는 경우, 半製品인 크링카를 輸入 加工하여 自國內 수요를 充當하고 나머지 일부를 輸出하는 경우, 國內 공급가격과 輸入價格과의 差로 인해 輸入이 誘發되는 경우 등에 따른 現象이다.

## 國別 1人當 消費추세

시멘트의 1人當 消費수준을 基準삼아 國別 需給狀況을 알기 쉽게 區分하면 ①高水準安定型 ②成長極大型 ③中途成長型 ④低水準停滯型 등 4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의 경우는 先進國型으로 社會間接資本시설이 기본적으로 充足되어 있어 시멘트消費의 증가 또는 감소速度가 완만하면서도 一定量 이상의 需要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며 ②는 投資욕구가 極大化되어 있는 상태 ③은 開發途上

國으로서 成長街道를 달리고 있는 경우 ④는 落後된 국가들의 消費추세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또 시멘트消費는 GNP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보통이다.

즉, 1人當 國民所得이 1천달러 미만일 경우 대체적으로 1人當 시멘트消費量은 2백 kg 이내이며 1천달러 이상 3천달러 미만일 때 需要度가 最大幅으로 늘어나다가 3천달러 이상 高所得일 때 다시 下向곡선을 그리는 것이 常例이다.

以上の 類型을 참고삼아 1981년기준 시멘트生産實績 上位 20개國을 區分해 보면 美國(289 kg)·스페인(491 kg)·西獨(475 kg)·프랑스(501 kg)·英國(221 kg) 등 대부분의 西歐諸國들은 10年 前에 비해 1人當 消費수준이 모두 下向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日本(659 kg)·이태리(746 kg)·루마니아(532 kg)·대만(686 kg)·그리스(670 kg)·東獨(652 kg)·체코(702 kg) 등은 모두 10年 前보다 消費量이 激增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321 kg)를 비롯한 소련(465 kg)·브라질(204 kg)·멕시코(255 kg)·터키(259 kg)·폴란드(388 kg) 등은 꾸준한 上向勢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잠재수요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共(80 kg)과 印度(33 kg) 등의 경우는 落後된 社會相을 反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類型의 區分은 편의에 의한 경향이 짙어 크게 信賴할 수는 없다.

시멘트의 1人當 消費量은 國土 및 風土·人口數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81년기준 輸入國을 포함한 國別 1人當 시멘트消費量을 順位別로 보면 ①아랍토후국(3천 9백 kg) ②카타르(2천 6백 8 kg) ③바레인(1천 7백 kg) ④사우디아라비아(1천 6백 70 kg) ⑤쿠웨이트(1천 3백 kg) ⑥리비아(1천 30 kg) ⑦이라크(9백 10 kg) ⑧키프러스(8백 95 kg) ⑨룩셈부르크(7백 86 kg) ⑩이태리(7백 46 kg) 順으로 上位 7개를 모두 中東産油國이 차지, 오일달러의 偉力を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